

한국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전일성의 회복

김 성 민

(협성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종교와 심리)

■ 초 록 ■

한국 그리스도인의 성격은 한국의 지형과 문화, 특히 천신신앙을 비롯한 무교, 불교, 유교 등의 영향 아래서 형성된 한국인의 성격과 기독교의 특성이 합쳐져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 한국 교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데, 현재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와 올바른 신앙 추구 사이의 부조화, 신비주의와 직접적 체험 추구 사이의 부조화, 현세주의와 적극적 신앙 추구 사이의 부조화, 행동주의와 열심 있는 신앙 추구 사이의 부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조화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고, 신앙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하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분석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부조화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정서적 반응들을 하게 하는 소년 원형과 노인 원형, 남성 원형과 여성 원형 사이의 불균형 때문이다. 전일적인 인격은 소년 원형에서 나온 새로움과 활력과 창조성이 노인 원형의 성숙한 틀 안에 들어가서 질서 있게 배열되어 완성되지만 늘 새로움을 잃지 않고 변환되며,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지만 정신성

을 잃지 않고 올바른 가치를 찾아서 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가는 인격인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이 원형들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전일성을 회복해야 한다.

주제어

성격, 소년/노인, 남성성/여성성, 균형, 전일성.

I. 인간의 성격 형성과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한국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고찰하는 문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이고, 그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한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처럼 출생 환경이나 개인사 등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주제를 다룬 선행 연구도 찾아볼 수 없어서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은 현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노정(露呈)되어 그 치유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성격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준용하고, 한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듯이 접근하고자 한다.¹⁾

1) 현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데, 그 문제는 너무 많은 분야로부터 분출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요청된다. 2010년 한국기독교교회의 주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주된 결정인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성격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요소와 유아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요소가 결합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성격적 특징을 나타내고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타고난 생물학적인 요인과 유아시절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정신역동이 합쳐져서 그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의 치료는 생물학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하고, 환경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치료가 행해진다. 내담자와 대화를 통하여 그에게 유아시절부터 형성된 콤플렉스를 의식화하게 하고 그 주위에 응축된 정감들을 해소시켜서 내적인 충동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²⁾

현재 우리가 하려는 논의에서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은 본고의 논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 환경적인 부분만 고찰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국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관련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한국인의 성격을 형성하게 했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과 다른 종교가 아닌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진 독특한 요인일 것이다. 먼저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국가와 동남쪽으로는 해양국가인 일본을 사이에 둔 반도 국가이다. 따라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과 바다 쪽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각축장이 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몬순 기후로서 사막이나 극지방과 달리 대체로 온화하며, 지형도 산

제 “한국 그리스도인의 인간성”은 그 같은 고뇌의 산물인 듯하다. 본 연구의 일부는 필자의 줄고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 종교문화에 대한 연구 시론”을 수정 발달시켰음을 밝힌다.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신경정신의학』 (서울 : 중앙문화사, 2005). 8-16.

악이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산악 이외의 지역에서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이러한 자연적 환경은 한국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봉영은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첫째 한국의 기후와 토양이 농업에 적합하여 노동집약에 유리한 대가족사회를 이루게 하였고, 둘째 이웃에 유교문화권 사회인 거대한 중국이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셋째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여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중앙정부가 취약하여 백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민중들이 그 침략들을 끈질기게 방어하여 민족문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³⁾

이러한 한국의 지리적 환경은 한국인의 성격 형성에 첫째로 가족주의, 둘째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철저한 구분, 셋째 감정 기능보다 지적 기능을 더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농업, 특히 벼농사는 일시에 수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여 대가족제도가 발달하게 하였고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자연히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존재하기보다 집단 안에서 자신을 파악하게 하여 집단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나 마을에서의 추방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과 달리 죄의식보다는 수치의식을 더 발달시켰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적의 침입 앞에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가장 기초적 단위인 가족과 마을 공동체였다. 자연히 한국인들에 있어서 내집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으며, 내집단을 벗어나는 것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대단히 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제국과 때로는 맞서 싸웠고, 때로는

3) 유봉영, 『외국과 감결소위십승지지』.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 (서울 : 한길사, 1994). 37에서 개인용. cf. 유봉영은 한국역사상 4000 여년 동안 외국의 침입이 931회 있었는데, 80% 이상이 왕권이 취약했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굴복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 유학은 중국의 지배원리로 삼국시대부터 우리 사회에 도입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유학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체계로서 인간의 감정과 본능을 억압하는 체계이다. 그에 따라서 한국인들은 감정과 본능을 억압하면서 지적 기능을 발달시켜왔다. 그리하여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한국인들은 본능적인 충동에서 벗어나 더 의식화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명분주의, 허위의식, 승문주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한국의 기후와 토양은 한국인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기후가 여름과 겨울에 일시적으로 혹서기와 혹한기가 있지만, 그것은 사막지방과 극지방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순조롭고, 한국의 산은 해발 3,000미터를 넘는 것이 없으며 그 밖의 토양은 농사짓기에 알맞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와 토양은 한국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데 많은 영향을 주어 한국문화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온화로운 한국의 기후와 토양은 한국인의 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최재석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감투지향의식, 상하서열의식, 친소구분의식, 공동체지향의식 등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인들은 대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부자관계에 모든 가치의 중심을 두어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가통(家統)을 잇고, 그 일족의 번영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한국인들에게는 ‘나’ 의식보다는 ‘우리’ 의식이 발달하였고,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무조건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감투지향의식을 키웠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분, 재산, 나이, 학벌에 따라서 서열을 짓고, 처음 만나서도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는 상하서열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를 합리적 원리

에 의해서 맺기보다는 친소원근을 따져서 가까운 사람은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배타하는 친소구분의식이 짙으며,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와 미분화되어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을 추종하는 공동체지향의식이 짙다는 것이다.⁴⁾ 같은 맥락에서 강신표 역시 한국인의 특성을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집단성, 급수성, 연극/의례성 등으로 정리했는데, 집단성이란 최재석의 공동체지향의식, 급수성은 상하서열의식과 큰 차이가 없다. 강신표에게 특징적인 것은 연극/의례성이라는 개념인데, 연극/의례성이란 한국인들은 배가 고파도 에헴 하고, 체면을 차리느라고 헛기침하는 연극성이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서로 타협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입장이 곤란해지면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덮어버리는 의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극/의례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그것은 여름날 소나기가 짝 뿌렸다가 해가 반짝 난다든지, 무당이 열 두 마당 굿거리를 하면서 한 마당이 지나면 굿판을 걷고, 그 다음 마당을 시작하는 것과 연관되는 듯한 현상이다. 실제로 없던 일로 한다고 해서 논쟁벌일 때의 감정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면 억지로라도 없던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서양인들처럼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자르기보다 유보해두면서 풀어나가려는 것이다.⁵⁾

II. 한국 종교사의 전개와 한국인의 성격

4)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서울 : 개문사, 1993). 42. cf. 김성민, 『생명의 의미와 새로운 그리스도』(서울 : 다산글방, 2003). 186.

5) 강신표, “대학, 대학인, 대학문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3년도 대학교수개발 워크숍 자료집, 별책. 1-20. cf. 김성민, *op.cit.*, 187.

1.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종교문화의 전개

한국의 지리적 환경 못지않게 한국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환경이다. 문화란 한 사람 속에 ‘정신 프로그램’처럼 내장되어서 한 사람을 ‘호출’(appel)하고, 개입하면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선츠(M.H.Biesanz) 등은 “문화란 인간 행동에 의하여 학습된 부분으로서 인간 스스로 창조하여 자신의 환경의 일부로 삼은 사고방식, 감정양식 및 행동유형을 말한다”⁶⁾고 정의하였다. 지금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고찰하려는 것도 한국 교회가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지 않는 한 그것이 재생산되어 다음 시대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문화 속에서 태어난 개인은 그것이 그에게 아주 커다란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성격 형성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의 종교문화사이다. 한국 그리스도인은 한국 종교인이라는 역사적 뿌리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종교들은 한국인들의 무의식에 남아서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종교사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천신신앙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접

6) M. H. Biesanz and J. Biesanz, *Introduction to Soci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54. cf. 여기에서 ‘호출’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의 철학자 알튀세르의 개념인데, 현대인들은 광고, 선전, 설득 앞에 불려 세워지고 교묘하게 지배받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것들로부터 ‘호출’당하고 있다. cf. Louis Althusser, *Pour Marx* (Paris: Maspero, 1966). 200-201. Chris Jenks/ 김윤용 역,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술사, 1986), 158-162에서 재인용.

축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초월적이고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차원이 있을
을 깨닫고 그것을 하늘에 투사시키거나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천신신앙
이 있었던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천신인 환인(桓因)의 아들이었
으며, 죽은 다음 산신이 되었다.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은 모두 천신신앙의 존재를 말해주는데, 천신신앙은 고려시대의 팔관
회로 이어졌다. 한국 불교에서는 다른 나라 불교에 없는 삼신각이나 칠
성당이 있는데, 그것들도 천신신앙의 변용이고, 각 지역에서 지내는 천
신제, 산신제도 천신신앙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천신신앙은 한국
인들의 가장 깊은 층에 있으면서, 다른 종교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모체
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진홍은 “이러한 여러 사실들은 한국인의 근
원적인 신 관념이나 신앙이 하늘-님(sky-god)을 정점으로 해서 전개,
분화될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강하게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러한 천신신앙은 그 후 무교로 넘어가 무교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은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절대신보다 그들의 삶에 직접적
인 도움을 주는 기능신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은 다산과 풍
요를 가져다주는 농경신, 풍어를 보장하는 해신(海神) 등으로 나누어지
다가 무교의 수많은 신령들로 이어진다. 종교학적으로 말해서 무교는 역
현(力顯, kratophany)의 대표적인 종교인 것이다.⁸⁾ 역현의 종교란 자연
력 앞에서 지극히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강력한 자연과 맞서 싸우는 과
정에서 그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종교이다. 그래서 무
교에서는 모든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존재는 다 신이 될 수 있다. 역울하
게 죽은 장군도 신이 될 수 있고, 어릴 때 죽어서 그 힘이 다 실현되지
못한 아이의 영(兒靈)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키는데

7) 정진홍, 『한국종교문화의 전개』(서울: 집문당, 1988). 69. cf. 유동식,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8) 종교사학자 M 엘리야데는 기능신으로 대체되는 이런 천공신을 “멀어진 신”(deus
otiosus)이라고 하였다. M. Eliade, 『종교형태론』(서울: 형설출판사, 1982). 64 이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은 이들 신의 힘을 빌어서 의뢰인에게 치병, 예언, 기복, 해원 등을 해주었다. 그러면 의뢰인은 굿을 통해서 정동체험을 하고, 그들의 소원이 들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고단한 현실을 견디어 낸다. 우리 조상들은 무교의 도움으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힘을 얻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부딪혔을 때 그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여 해답을 얻었던 것이다.⁹⁾ 이러한 무속신앙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삶의 구체적인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령의 힘을 빌리려는 힘의 추구, 둘째로 하나의 굿판에서 여러 신령들이 어우러지고, 무당의 화려한 의상과 북, 장구, 피리 소리와 흥겨운 춤이 어우러지는 융합적인 성격, 셋째로 굿이 벌어지는 굿판을 떠나면 사람들이 곧 굿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굿판을 벌일 때까지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연희적(演戲的) 성격, 넷째로 궁극적인 삶이나 그 삶에 필요한 규범을 추구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현세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화를 물리치려는 현세적인 특성이 있다.¹⁰⁾

이러한 무교는 통일신라에 들어와서 불교에게 자리를 양도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의 의식세계가 발달하면서 이제 더 이상 현세적인 복만 가지고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좀 더 근본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불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지극히 정교한 사유체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통일신라 이래 고려 시대에 국교로 되었다가 조선 시대에 잠시 박해받았지만, 민중들 사이에서 신봉었고 지금까지 신도 수로는 가장 커다란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국 불교의 특징을 정병조는 첫째 화엄경에 바탕을 둔 일승원융사상, 둘째 미륵신앙, 셋째

9) 조흥운, “무,”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 (서울: 문덕사, 1995). 54-77.

10) 김성민, *op. cit.*, 192.

대승사상을 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한국 불교는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불교의 여러 종파의 모순상쟁이 보다 높은 입장에서 융화 통일될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륵불은 미래 세계에 태어나 화림원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불인데, 한 개인이 삶에서 혼란에 빠졌을 때나 사회가 어지러울 때 현세를 뛰어넘는 세계를 제시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에게 미륵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는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원하려는 대승불교적인 특징이 있다. 나 혼자 깨달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이런 성향은 한국 사상이 언제나 인간과 인간의 삶을 위한 인본주의적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데, 그것은 현세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심성과 어우러져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양식을 산출하였다. 한국 불교는 한국의 전통신앙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잘 융합되었던 것이다.¹¹⁾

불교 다음에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종교가 된 것은 유교이다. 하지만 유교는 이단사설을 배척하는 배타적 특성 때문에 그 전에 존재했던 무교나 불교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한국인의 심성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에서 그 전까지 흥성하던 불교 대신 유교를 받아들인 것은 유교가 가진 이념성 때문이다. 유교는 특별한 사제제도 없이 지극히 합리적인 사상의 바탕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데, 그것이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조선을 건국한 선비들의 이념과 잘 맞았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의 특성을 최봉영은 첫째 유교문화의 주도세력이었던 선비는 가(家) 중심의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자아실현을 거의 실현에서 찾아 입신양명을 가장 중요한 성취동기로 생각하였고, 둘째 이 기성정의 논리에 근거하여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실현하고, 정한을 조화

11) 정병조, “불교,” 윤이홍 외, 『한국인의 종교』 (서울: 문덕사, 1995), 87-97. cf. 김성민, *op. cit.*, 193.

롭게 발산시키려고 하였으며, 셋째 개화기 이후 서구문물의 도래 앞에서 민족혼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분열되었으나 후자가 지배적으로 되면서 한국 혼과 정신이 나간 사회로 되었고, 넷째 그 후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신문화를 추구하는 신지식인의 등장으로 선비들이 밀려나고, 서구문화가 압도하여 전통과의 급격한 단절이 초래되었으며, 다섯째 신문화가 전개되면서 의리의 퇴화와 단절로 기존의 문화가 바탕으로 삼던 윤리적, 종교적 근거가 상실되어 예의와 염치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된 한국 문화의 특성을 홉스테드(G. Hofstede)는 권위주의적, 집합주의적, 여성적, 불확실성회피 경향적, 장기 지향적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로 한국문화는 권위주의적이다. 한국문화는 유교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불평등한 권력구조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가 용인되고,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문화는 집합주의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집단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때문에 내집단, 외집단 구분이 심하고 모든 일이 전체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문화는 성취, 경쟁 등 남성적 가치보다 겸손, 포용, 타협 등 여성적 가치가 두드러진다. 넷째로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적, 활동적, 모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인다. 한국인들은 그냥 앉아서 불안을 기다리기 보다 먼저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삶에 대한 태도가 근시안적이지 않고 멀리 바라보아 끈기 있고, 절약하며,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며 산다고 주장하였다. 홉스테드는 다국적기업인 IBM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똑같은 설

12) 최봉영,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세계절, 1998), 421-439. cf. 김성민, *op. cit.*, 194.

문지를 나누어주고, 그것을 분석해서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들과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¹³⁾

2. 한국 문화의 특성과 한국인

우리는 여태까지 살펴본 최재석, 강신표, 홉스테드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문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한국문화는 집단주의적인 특성이 있다. 한국 문화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대가족이 모여 살아서 개개인들은 집단과 미분화되어 개인의식이 약하고 ‘우리’ 속에 과몰입하여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느라고 최재석이 말했듯이 상하서열의식이 강하고, 강신표가 말한 급수성이 발달되어있으며, 홉스테드가 말했듯이 권력거리가 큰 권위주의적인 문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사회에 연장시켜서 혈연, 지연, 학연 등 1차적 집단 지향성이 대단히 강하다. 많은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철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낮가림이 매우 심한데, 최재석은 이것을 친소구분의식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한국문화의 집단주의적 성격은 벼농사 중심의 산업적 필요와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적 필요성 및 유교의 가(家) 문화 등이 어우러져서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한국문화에는 융합주의적인 특성이 있다. 한국문화에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파랑, 노랑, 빨강의 삼태극이 동심원을 그리며 서로 어우러져 돌아가듯이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하나로 융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¹⁴⁾ 대표적인 예가 종교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나라

13) G.Hofstede/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서울: 학지사, 1995), 47-205. cf. 김성민, *op. cit.*, 188.

14) Cf. 최준식, *op. cit.*, 111. 김태길이 고대소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 대부분의 고대소설에는 유교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는 과거 유불선 삼교를 하나로 융합하여 민족문화를 이루었고, 근대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종교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불교에서도 생사, 예토(穢土)와 정국(淨國)이 다르지 않다는 화엄경의 일승원융사상이 한국불교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고, 불교, 유교,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혼합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의 융합주의적인 성격은 강력한 힘을 추구했던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국 무당들은 힘이 있는 신령이면 조상신, 일월성신, 한국신, 중국신 가리지 않고 모두 섬겼으며, 굿판 역시 서로 다른 성격의 작은 굿판들이 하나의 큰 굿판을 이루면서 진행된다. 모든 것을 비빔밥처럼 뒤섞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홉스테드는 극단적인 분쟁보다는 모든 것을 뒤섞어서 타협하는 한국문화의 여성성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순응주의를 낳게 했는데, 한국인들은 힘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더 센 힘을 만나면 곧 거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셋째로 한국문화에는 연희주의적(演戲主義的)인 특성이 있다. 한국문화에는 엑스타시 상태에 빠진 무당이 열광적으로 굿판을 벌이듯이 어떤 사건이 현안이 되면 이 세상에 그것밖에 중요한 일이 없는 듯이 매달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마치 “없었던 것으로” 되고, 다시 새로운 판을 벌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처럼 쉬 끓고 쉬 식으며, 망각의 천재라고 비판받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새 판을 벌이면서 타개하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인의 이런 특성은 굿의 구조와 깊이 관련되는데, 그것은 굿의 진행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인들이 신바람이 나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역량을 발휘하고, 실패하더라도 곧 분발하는 낙관적 태도를 보이는 점이다.

것을 볼 수 있다.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서울: 문음사, 1987). 20-23.

넷째로 한국문화에는 명분주의적인 특성이 있다. 이 점은 특히 유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인들은 대의명분과 의리를 앞세우느라 실질적인 것에 소홀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특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성은 한국인들이 눈 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삶의 본뜻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현실과 괴리될 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데 맹점이 있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명분주의에서 비롯된 체면은 한 사람이 그에게 요청되는 사회적인 역할과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는 외적인 인격(persona)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형식화되어서 그의 내적인 인격(anima/animus)과 분리되면 역기능을 하게 된다.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공염불일 뿐 내심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에 현재 만연되어 있는 이중 윤리, 자기는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강요하는 설교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길 다르고 속 다른 현대 한국인들의 병폐의 원산인 것이다.

다섯째로 한국문화에는 현세주의적인 특성이 있다. 한국인들은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현세에서의 행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에게서 저승에 대한 생각은 다른 종교의 그것들과 달리 이승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듯이 현세를 철저히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불교에서는 해탈보다는 복을 빌려는 목적이 많았고, 유교의 제사에서 조상승배보다는 조상에게 복을 빌려는 의도가 강하였다. 곳 역시 거의 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신령의 힘을 빌어서 현세적인 부귀영화를 빌려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 현재의 복만 비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¹⁵⁾

III. 기독교의 전래와 한국의 그리스도인

한국 종교사에서 볼 때, 기독교는 가장 최근에 전래된 외래 종교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서구문화가 선진문화로 인식된 서세동점의 시대에 서구문화의 한 부분으로 전래되었고,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는 재편기에 기독교와 함께 서구 학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리 잡는데 유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종교로 자리 매김하였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직 토착화되지 못하여 전통문화와 잘 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래 초기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던 역동성을 상실하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행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도 한국 사회에서 명멸하였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기독교 사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독교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둘째 구원의 종교, 셋째 하나님 나라 대망, 넷째 교회 공동체의 종교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한국 사회에서 외래종교라는 특성이 덧붙여진다. 먼저 기독교의 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이다. 그 신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은” 절대자이고, 모성적인 성격보다 부성(父性)이 두드러진 초월자인 동시에 내재적 속성을 가진 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성육신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정신성 추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신

15) 김성민, *op. cit.*, 188-191. cf.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현실성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가장 발달한 것은 감각(感覺) 기능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말에는 소리, 색, 형태 등을 나타내는 의성어, 의태어 등이 발달하였고, 과거나 현재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다. 우리 민족은 순조로운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면서 자연을 더 깊고 예민하게 느낄 줄 알았던 것이다.

양은 사람들을 모든 삶의 곤경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확대되었고, 기독교가 전래된 다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열망하는 민중의 욕구와 어우러져서 더욱더 확산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은 현실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네 번째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 신도들은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히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실천한 사랑을 행하고 성례전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삶을 살게 했지만, 이 세상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하게 하기도 하였다.¹⁶⁾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외래종교로서 한국에 기독교를 전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18세기부터 시작된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기독교화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한국 교회가 토착화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¹⁷⁾

이런 배경을 가진 기독교는 한말 엄격한 유교에 기반을 둔 사회가 붕괴되어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던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 인권과 평등사상을 주장하여 새로운 사회의 이상을 보여주었고, 많은 애국지사들은 초기에 기독교를 믿으면서 한국 사회를 개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수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신학문과 과학사상을 소개하면서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였고, 합리적 세계관을 도입하여 한국 사회에 진취적이고 새로운 가치

16) G.Aulen/ 김관석 역, 『조직신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102-305. cf. P. Tillich, *Systematic 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17)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54 이하. cf. 오강남, 『예수는 없다』 (서울: 현암사, 2001). 44.

관을 확립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미국 선교사들의 문화제국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제사제도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종교의례, 세시풍속, 민속놀이 등을 모두 열등하거나 미신시하여 전통과의 단절을 심화시켰다.¹⁸⁾

이와 같은 기독교는 그 동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어 왔으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양가적 특성들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순기능을 보일 때는 한국 사회에 기여했지만 역기능을 보일 때는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그 특성 가운데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적 특성과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려는 태도 사이의 부조화이다. 근본주의는 본래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생긴 종교운동으로 근본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현대의 세속화된 세계와 구분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믿음을 고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보수적인 정치 집단과 연합하여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 사회주의 등을 배격하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성서적으로 문자주의를 채택하여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서 중생의 경험, 섭리주의, 개인구원, 엄격한 윤리생활을 강조한다.

이러한 근본주의는 유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고, 올바른 진리를 추구해왔던 한국인들의 심성에 부합되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한국 기독교에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는 현재 기독교가 한국 사회와 올바른 접촉점을 찾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발달한 인간의 지적인 성과를 무시하고

18) 김경재, 『종교다원주의시대의 기독교영성』(서울: 다산글방, 1994), 203-6. cf. 김성민, *op. cit.*, 195-196.

고대적인 세계관을 탈피하지 못한 채 비지성적이고 유아적이며 맹목적인 신앙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비지성적이고 전투적인 신앙태도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는 박해를 순교자적인 고통으로 간주하여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¹⁹⁾

두 번째 특성은 신비주의적 특성과 직접적인 체험을 바라는 신앙 사이의 부조화이다. 신비적인 것(mystic)은 초월적이고 궁극적 존재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 그래서 신비가들은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종교가 위협 받을 때 인간 정신의 더 깊은 층을 접촉하면서 종교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 정신의 발달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이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을 잃고 암중모색할 때 인간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면서 나아갔던 것이다.²⁰⁾ 한국 종교에서도 민중들은 굶을 하면서 무당들과 함께 엑스타시에 빠졌고, 선(禪)을 통하여 삼매경에 들어가 이 세상과 다른 궁극적인 삶의 차원이 있음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언제나 그 경지에 다가가려고 했으며, 신바람이 나면 능력 이상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인의 심층에는 신적인 존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인의 심성은 기독교의 신비적 전통과 만나면서 수많은 회심과 중생 체험을 하게 하였으며 한국 기독교를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는 세계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활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심성이 비지성적이고 이기적인 욕망과 잘못 합쳐지면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미신적 풍조에 빠지게 된다. 먼저 한국 교회의 열광주의는 대단하다. 많은 집회에서는 때때로 통성기도나 방언기도 등을 하면서 정동(emotion) 속으로 휩쓸려가는 것이다. 그때 이성이 설 자리는

19) 이원규, *op. cit.*, 29-34. cf. 오강남, 『예수는 없다』 (서울: 현암사, 2001), 73-79.

20) H. Bergson, *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 (Paris: PUF, 1984), 1170.

없어지고, 올바른 판단력은 마비된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도외시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신앙행위들은 주술로 되는데, 한국 교회에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고, 신유(神癒)집회, 은사집회, 기도원 등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기복자나 주술사가 되고 만다. 기독교가 그렇게 반대했던 원시종교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는 부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도구로 삼는 것이다.

셋째로 현세주의적 특성과 적극적 신앙 사이의 부조화이다. 한국인들의 특성 가운데서 현세주의적 특성은 두드러진다. 한국 종교에는 기독교와 같은 사후세계가 없으며, 한국의 전통종교에서 말하는 후천개벽, 천지개벽 등도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한국인들에게는 사후세계보다 현세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한국인의 이런 현세성은 한국인들이 현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가진 근대성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학문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키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산업화하고, 민주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세성에 정신(spirit)이 결여될 때 한국 교회는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빠지며, 물질주의는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되었다.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돈이 하나님으로 되었다. 많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 헌금을 강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까지 소외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자끄 엘뤼은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숭배하든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권세를 가진 영적 세력이고, 돈을 숭

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¹⁾ 그러나 한국 교회는 종종 돈이라는 권세에 짓눌려 기를 써서 돈을 벌려고 하며, 많은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에서 물질적인 과시를 하거나, 소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비어있는 영적 부분을 물질로 메우려고 하며, 교회 행사 때마다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행동주의적 특성과 열심 있는 신앙 사이의 부조화이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130년이 채 되지 못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이 발표한 2008년 한국 종교 통계자료(2009-03-17)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의 신도 수는 861만 여명이다. 이와 같은 성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도들의 열심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성경공부, 부흥회, 해외선교 등 열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지금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열심이 잘못되면 무의미한 행동주의를 낳으며, 공로주의로 변질된다. 행동주의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행동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의 신도나 목회자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행사를 벌이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상 주는 분으로 생각하여 공로를 쌓으려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는 율법주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세까지 공로를 통하여 얻으려고, 강박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갖은 명목으로 헌금을 내지만 정작 마음에는 아무 평화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²²⁾ 이런 것들은 모두 불안을 외적 행동을 통하여 달래려는 정신병리인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또한 행동주의

21) J. Ellul/ 양명수 역, 『하나님이나 돈이나』 (서울: 대장간, 1991).

22) 이오갑은 한국 목회자의 주 근무시간은 78시간, 연중 휴가는 3.2일로 일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였다. 이오갑, 『한국기독교 개혁의 테마 20』 (서울: 한들출판사, 2002). 131.

는 성공주의와도 연결되는데, 한국 교회는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는 전투적인 태도가 많으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행동을 하고, 개인 생활에서도 타협이나 양보 없이 성취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의 탐욕을 읽고 외면한다.²³⁾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 만연된 부조화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일부 한국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앙과 실천 사이의 괴리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지 실천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이 없을 경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 기독교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이라는 죄와 교만이라는 죄를 극복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²⁴⁾ 그런데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과 실천의 불일치를 넘어서 더 심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부도덕성을 넘어서 각종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강남은 이런 현상을 “실체적 무신론”이라고 비판하였다. 일부 목회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 무신론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²⁵⁾

한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주의는 또 다른 병리 현상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가?” 하

23) 오강남은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공주의에서 다신주의적 성향을 읽었다.

현대 한국 교인들은 야훼 하나님보다는 출세의 하나님, 황금의 하나님, 사업의 하나님을 더 믿는 다신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오강남, 『예수는 없다』, 131-2.

24) J. Ellul/ 자끄 엘릴번역위원회 역, 『뒤틀려진 기독교』 (서울: 대장간, 1990), 19.

25) Cf. M. J. Meadow & R. D. Kahoe/ 최준식 역, 『종교심리학』 (서울: 민중사, 1992), 197.

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31.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7.5%였다.²⁶⁾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사랑을 찾지만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거나, 손해 보는 일에는 좀체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집단적으로 자교회 중심주의로 나타나서 대형교회에서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교회 교인을 끌어오거나 지방으로까지 교회 버스를 운행하고, 지성전을 지어 자기 교회의 영토를 넓히려려고 한다.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현대 사회의 기술주의에 귀신들려 있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여 다른 종교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²⁷⁾

IV. 한국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1. 소년 원형과 노인 원형의 통합

이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극히 유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전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 C.G. 융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원형(原型) 가운데 소년 원형/노인 원형, 남성 원형/여성 원형이 있고, 그것들은 잘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남녀/노소 원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인격의 전일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그 균형이 깨져서 그 요소들이 가진 부정적

26) 이오갑, *op. cit.*, 19.

27) 기독교신문취재팀(편), 『한국교회의 허와 실』 (서울: 쿤란출판사, 1992). 96-104.

특성이 과장되게 나타나 문제이다. 융에 의하면, 원형은 집단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들이 삶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전형적인 행동 유형(patterns of behavior)이다. 원형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자연이나 다른 사람들과 경험했던 내용들이 응축되어 무의식에 남겨진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원형이 작용하여 그 상황에 대처하곤 한다. 융이 “원형은 반응을 하게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체계(living system)이다”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원형은 그 자체로는 어떤 특정한 성질이 없고, 자아가 그것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작용한다.²⁸⁾

융은 소년 원형은 무의식에 있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능력과 관계되는 정신 요소로서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나 아티스 같은 소년 신(child god)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²⁹⁾ 그래서 소년 원형은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고, 생명을 되살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준다. 소년 원형은 아들, 소년 신, 영웅 등으로 나타나면서 한 사람의 삶이나 집단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원형이 그렇듯이 소년 원형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소년 원형에는 호기심이 많아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지만, 미숙하고 틀이 잡혀 있지 않아서 과잉 행동적이고 서두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융 학파 분석가 힐만(J.Hillman)은 소년 원형은 태양을 향해서 날아 올

28) C.G.Jung, *Aion*(Paris : Albin Michel, 1983). 27. cf. 힐만은 “senex 원형과 puer 원형은 이 두 모습이 서로에게 아주 가까이 있으며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중간점에 위치하게 된다. 그때 그것은 한 사람에게 치료적 효과를 주게 되며 ...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에 느꼈던 puer spirit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긍정하면, senex가 가진 책임감과 질서라는 덕성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J.Hillman, *Senex and Puer*, 60.

29) C. G. Jung, *Metamorphose de l'ame et ses symbole*, (Geneve: Librairie de l'Universite George, 1953). 231.

라가기만 했던 이카루스처럼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자꾸 위로 오르려고 하며, 정신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년 원형은 노인 원형과 긴장 관계에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⁰⁾

소년 원형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사람들은 “영원한 소년”(puer aeternus)의 지배를 받는다. 융학과 분석가 폰 프란츠는 썸 뉘취뿔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영원한 소년의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성은 첫째 비사회적인 개인주의(asocial individualism), 즉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것, 둘째 임시적인 삶(provisional life)에서 나온 유보적 태도, 즉 현실과 접촉할 때 온 마음으로 대처하지 않고 반쯤 유보된 채 반응하는 것, 셋째 참을성이 없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태도, 즉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만 어려운 것이 나오면 참지 못하고 즉시 다른 일을 하거나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넷째 나이브하고 이상주의적인 태도, 즉 현실과 제대로 접촉한 적이 없어서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다섯째 감정이 미숙하고 감상적인 태도, 즉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에 잘 빠지고 번덕이 심하며, 잘 토라지고, 진정한 감정 대신 감상(感傷)에 빠지는 것, 다섯째 동성애적 성향이나 돈환이 되는 것, 즉 여성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랑을 성욕(性慾)으로 대체하는 태도이다.³¹⁾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년이 남아 있으면 그의 삶은 고통에 빠진다. 그는 삶에서 불가피한 고난이 두려워서 언제나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폰 프란츠는 영원한 소년의 문제는 모성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절에서 떠나지 못하여 영원히 “어머니의 아들”로 남아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소년은 때때로 묘한 매력을 풍기기도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아

30) J. Hillman, *Puer Papers*, (Dallas: Spring Publications, Inc., 1991). 24-57. cf. J. Hillman, *Senex and Puer* (Putnam, Connecticut: Spring Publications, Inc.), 2005.

31) M.-L. von Franz, *Puer aeternus*, (Zurich: Sisa Sternback-Scott, 1970). 3-178.

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아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의 내면에 환상이 가득 하지만,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³²⁾

소년(puer) 원형의 반대편에 노인(senex) 원형이 있는데, 노인 원형의 대표적인 특성은 법, 질서, 의미이다. 소년 원형이 새싹처럼 자연에 새로운 기운을 붓고 자라게 하는 것이라면 노인 원형은 그 씨가 열매 맺게 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소년 원형이 지배하는 곳에 분출, 도약, 활력이 있다면, 노인 원형이 지배하는 곳에는 안정, 절제, 정돈이 있다. 노인 원형은 분출된 생명력을 틀 안에 넣어서 완성되게 하는 것이다. 힐만은 노인 원형은 로마에서 농업의 신인 새턴(Saturn), 그리스에서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Kronos)로 의인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새턴은 농업의 신으로 주어진 틀 안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풍요한 시절을 꿈꾸는 신이고, 크로노스는 아들에게 자리를 빼앗길까봐 아내가 아이를 낳기만 삼켜버린 무서운 부신(父神)이다. 이런 신화적 이미지는 노인 원형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데, 노인 원형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범위를 정하면서 질서를 세우지만,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집어 삼키면서 과거의 황금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노인-의식(意識)은 법, 제도, 체계, 습관을 숭상하며 가부장적 견고성 속에서 사는 것이다. 노인-의식은 노현자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좋았던 옛날”만 그리워하는데, 민담에 나오는 늙은 왕의 이미지는 노인 원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늙은 왕은 그 전에 아무리 잘 다스렸을지라도 때가 되면 새로운 왕에게 양위해야 하는 것이다. 노인 원형은 노인에게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힐만은 어떤 아이가 “나는 알아”, “내 것이야”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만 주장할 때도 나타난다고 하였다.³³⁾

32) M.-L. von Franz, *op. cit.*, 1-10.

힐만은 서로 대극적인 관계에 있는 소년 원형과 노인 원형은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하나가 무의식화되어 그 특성만 강화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염시켜서 그 특성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노인 원형이 소년 원형을 감염시킬 때 소년의 미숙한 특성이 견고하게 되거나, 소년 원형이 노인 원형을 감염시킬 때 노인의 규범은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런 사람의 행동은 소년의 부정적인 특성과 노인의 부정적인 특성이 교대로 나타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소년 원형과 노인 원형이 분열되어 있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힐만은 주장하였다. 정신성을 나타내는 노인 원형이 삶의 틀(form)이 없는 소년 원형에 감염되어 영적 혼돈에 빠지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점술이나 심령술 등 미신적인 것에 탐닉하거나, 이 세상에 절망하여 정신성만 추구하게 되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혼동하여 율법이나 규범을 절대시 하며, 가족이나 직업, 의무에 몰두하여 그의 운명을 피하려고 하고, 성(性)이나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여 더 탐욕적으로 된다. 다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으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미숙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어떤 열정에 불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다. 그들의 열정이 정신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긴장에서 완전히 도피하려는 의도에서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거세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혈만은 응고된 것은 용해되고, 용해된 것은 다시 응고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인 원형이 소년 원형을 잃으면 정체에 빠지고, 소년 원형이 노인 원형을 잃으면 경계가 없어지고 무질서하게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⁴⁾

2.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

다음으로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정서적 반응 등을 결정하는 내적 원천은 남성 원형과 여성 원형인데, 그것들은 한 사람에게서 남성성, 여성성으로 나타난다. 용은 남성성의 특성을 로고스(logos), 여성성의 특성을 에로스(eros)라고 하였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것에 대한 관심, 에로스는 정신적인 관계 맺기로 전개되어 남성성은 바깥 세계에 적응하고, 목표를 세워서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별(discrimination), 판단(judgement), 논리성(logic)과 관계된다면, 여성성은 감정이나 내면세계와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 대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거나(union),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려고 하며(feeling), 내면에서 나오는 영감(inspiration)이나 직관(intuition)과 관계된다.³⁵⁾ 그래서 분석심리학자 스타인버그는 남성의 성 역할이 도구적/적극적인 것이라면, 여성의 그것은 표현적/수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성이 합리적, 자기-주장적, 과제지향적으로 외부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집단의 정서적인 삶을 꾸려나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삶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전통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주로 담당하여 남성성 혹은 여성성으로 알려져 왔다.³⁶⁾

34) *Ibid.*, 122-263.

35) A. Ulanov, *The Feminine in Jungian Psychology and in Christian Theology*,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1). 155.

36) Warren Steinberg, *Masculinity*, (Boston: Shambhala, 1993). 2-6. cf. A. Ulanov,

용은 남성에게는 남성성, 여성에게는 여성성이 의식적으로 작용하지 만 무의식에서는 그와 반대로 남성의 무의식에서는 여성성, 여성의 무의식에서는 남성성이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에 있는 이성적인 특성이 억압되지 않고 그의 본래적인 성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해야 한다. 한 사람이 그의 성적 특성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경우 그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삶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주 남성적인 사람이 내면에서는 아주 여성적이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여성적인 사람의 내면에 강한 남성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철학 재상으로 알려진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가 혼자 있을 때는 곧잘 흐느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강한 남자’가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감정의 문제에 관한 한 아주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다. … 그런 사람들의 아내는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다.”³⁷⁾

한 사람에게 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3세경부터이며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청이 최고조에 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남성의 모범을 보이면서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야 하고, 어머니는 딸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동성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에게서 성 역할을 제대로 학습할 때, 성 정체성은 올바르게 확립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성은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성취 등과 관계되어 권위, 규율, 강함, 공격성, 합리성, 과제 지향성, 정신성, 스티기 등과 동일시되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남성

op.cit., 154. 그러나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특성이 어떤 구체적인 남성이나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인간의 삶에 있는 두 가지 원리로서 그것이 여태까지 남성이나 여성이 담당하여 집단무의식에 원형으로 내장되었고 학습을 통하여 강화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37) C. G. Jung,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194.

성을 학습한다면 아들에게서 그런 특성들은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 방치, 아버지의 유약이나 무력 등으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남성성을 학습하지 못하거나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거부할 때 아들은 남성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 못하여 여성화되거나 원시적인 남성성이 그대로 남아서 여성 같은 남성이 되거나 거칠고 폭력적인 남성으로 된다. 심한 경우 동성애에 빠지거나 아예 거세된 채 무력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 그에게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왜곡되어 온전한 인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³⁸⁾

스타인버그는 남성성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공격성과 성에 대한 규율을 배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격성과 성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성(intimacy)을 나누는데 필요한 요인인데, 그것을 자기 주도 아래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문제에 빠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자기-규율(self-discipline)을 학습하고, 그 기능들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격성과 성욕이 두려워서 억압만 하면서 긴장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당한 힘(power)도 행사하지 못하거나 여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가 어려워서 회피한다. 자기-주장을 하는데 서투르고,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여 위축된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과의 관계를 피하면서 여성적인 것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지배하려고만 해서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분화되지 못하여 친밀한 것은 모두 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히 인간

38) 동성애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캐나다의 정신분석가 꼬르노는 동성애자 중 많은 사람의 문제가 부친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G. Comeau, *Absent Fathers, Lost Sons*(Boston L. Shambhala, 1991). 63-74.

관계 전반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관계보다는 힘에 의한 지배나 복종을 더 선호하게 된다.³⁹⁾

한편 여성성의 특성은 에로스로 대표되며, 에로스는 정신적으로 관계 맺기(relatedness)로 나타난다. 여성성은 외부생활에 몰두하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안에서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품어주면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성은 따뜻함, 수용, 공감적 능력, 정서적 표현 등과 관계된다. 미국의 융학과 분석가 울라노프는 관계 맺기란 단순히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그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성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성성은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추상적인 남성성과 달리 감정적이고 전-논리적이며 구체적인 특성이 있어서 남성성이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하여 남성성을 보완하는 기능이라는 것이다.⁴⁰⁾

여성성은 민담에 나오는 소녀, 처녀, 어머니, 계모, 할머니,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여신들에 의해서 펼쳐진다. 하나의 원형으로서 여성성은 긍정적인 성질과 부정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영웅에게 길을 안내하는가 하면 싸이렌처럼 영웅을 유혹하여 죽이기도 한다. 자아(自我)가 실제의 여성이나 무의식의 여성인 아니마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좋은 방향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융은 여성성의 이런 특성은 그릇(vase)이나 달(lune)의 상징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성은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은 그릇으로 보관, 보수, 안정 등을 나타내고, 햇빛이 아닌 달빛으로 또 다른 빛을 비추면서 달이 차고 기움에 따라 자연을 변환시킨다는 것이다.⁴¹⁾ 여성성이 가진 이 두 성격은 생명의 발달과 관계된다. 생명은 어

39) *Ibid.*, 132-136.

40) A. Ulanov, *op. cit.*, 156.

41)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IX, Part

머니로부터 태어나 양육 받고, 어머니를 떠나 다른 여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고, 다시 기원과 사멸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실제의 여성은 물론 내면에 있는 여성성과 접촉하면서 인격을 발달시키고 그들이 받아 나온 생명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⁴²⁾

이렇게 여성성은 한 사람이 전일성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양성적인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요소의 통합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이성을 그리워하거나 성관계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때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성적 원리의 통합을 촉구하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도 공허감이 여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성이 올바르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여성성의 담는 특성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을 함정에 빠트리거나, 꽂 붙들고 놓지 않거나, 삼켜버린다. 그런 현상은 민담에서 고약한 계모나 삼키는 어머니(devouring mother)나 요부(femme fatale)로 그려진다. 부정적인 여성성이 자아를 유혹해서 삼켜버리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우울 상태에 빠지거나, 무의식적 충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고, 마비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는 마법에 걸린 듯한 기분을 느끼고, 원시적인 행동으로 퇴행하게 된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⁴³⁾

한 사람에게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두 요소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남성의 경우 아니마가 미숙

I, 1959). 81-82. 융은 여성성에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담는 기초적 성격과 자연을 변환시키는 변환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cf. C. G. Jung, *Metamorphose de l'ame et ses symboles*, (Geneve: Librairie de l'Universite George, 1953). 491.

42) E. Neumann, *The Great Mother*,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26-29.

43) W. Steinberg, *op. cit.*, 183.

하여 감정 기능이나 관계 기능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하여 감정적으로는 불안, 우울, 변덕, 감상적으로 되고, 로고스 원리가 마비되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우물쭈물하게 되며, 메마르고 경직된 사람이 된다. 그 반면에 여성은 아니무스가 발달하지 못해서 많은 일에서 이것과 저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여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거나, 자기 생각 없이 집단적인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에로스가 발달하지 않아서 여성다운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많은 것을 따지거나 세세한 것에 붙들려 살기도 한다.⁴⁴⁾ 남성이나 여성이나 내면에서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얼어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때 그들을 붙잡는 것은 권력의지이다. 그들은 스스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스타인버그는 중앙 아프리카에서는 입문식을 할 때 소년들에게 여성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인이 되려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V. 결론 : 한국 그리스도인과 전일성의 회복

용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일적인 인격은 소년 원형에서 비롯되는 새로움, 활력, 창조성이 노인 원형의 성숙한 틀 안에 들어가 질서 있게 배열되어 원숙한 태도를 지니지만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며, 다른 사람들

44) C. G. Jung, *Aspects of the Femini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78. cf. W. Steinberg, *op. cit.*, 183.

45) W. Steinberg, *op. cit.*, 183.

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공감하지만 정신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인격이다. 한국 교회도 전래 초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독교 정신이 한국인의 심성과 잘 융화되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도덕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 구원 받은 삶을 추구하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일으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다른 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완고하고 자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늙은 왕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칠고 폭력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냉혹하고 탐욕스런 여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 인격을 구성하는 소년 원형과 노인 원형, 남성 원형과 여성 원형이 조화와 균형을 잃고 각각의 부정적인 특성이 강화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사람은 네 가지 요소가 배합되는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격으로 살게 된다. 그런 모습들은 그 어떤 것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병리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근본주의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성의 성과를 무시하고 성서문자주의를 채택하여 전투적인 신앙태도를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경직된 노인 원형과 남성 원형의 과제지향적인 권력의지를 보게 된다.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고, 창조적인 활력이 시든 완고한 노인의 모습은 물론 기독교의 전통적 신앙만 지키고 확산시키려는 거친 남성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소년의 싱그러움과 다른 사

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는 수용성을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늙고 병든 왕의 고집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담에서 늙고 병든 왕은 아들이 가져오는 샘물을 마시고 젊어지거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했다. 새롭게 발전하는 세계에 맞추어 기독교 신학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교회의 신비주의와 미신적 풍조 및 열광주의 역시 문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여성성의 왜곡과 유아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성의 특성 가운데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되어 엑스타시를 체험하면서 인격의 근본적인 변환을 이루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집회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하나 되어 열광상태에 빠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열광상태 속에서 그들의 의식과 이성엔 잠시 변이의식 상태(trance)에 빠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 무의식에 들어가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동력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체험은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 자아-팽창(ego-inflation)으로 이끌고 가기 쉽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더 자기 확신이 강한 인격으로 되는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로고스이다. 이러한 신비주의의 뒤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조급함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유아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을 유아성이 사로잡아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남성성의 특징인 로고스에서 나온 정신성이 노현자에게서 나오는 틀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 교회의 현세주의에서 우리는 여성성의 왜곡과 노인 원형의 왜곡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성에는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적으로 대

처하는 특성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현세주의에는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 나라를 없애지고 현세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여 그것대로 얻고, 현세에서도 하나님 나라 못지않은 복을 받으려고 한다. 한국 교회의 이런 현상은 한국인의 원시신앙인 무교와 기독교가 혼합돼서 생긴 현상인데, 한국 교회를 기복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빠지게 하였다. 여기에서 노인 원형은 한국 교회의 현세주의를 강화시키고 물질을 통해서 지배하려는 성향을 부추겨서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못지 않게 물질이 신으로 되어버린 듯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생각을 잊고 거대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잘못된 틀을 깨고 새로움을 가져오는 소년의 원형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행동주의 역시 심각한 병리현상인데, 훗스테드에 의하면 그것은 한국인의 불안한 심성과 연결된 특성인 듯하다. 한국인들은 과거부터 수많은 외침을 받아서 불안지수가 높는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온 듯한 것이다. 정말이지 한국 교회는 불안해하는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행사를 벌이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이웃 교회들과 경쟁을 벌이며, 눈에 보이는 성장에 매달려서 실적 경쟁을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년 원형의 왜곡과 남성 원형의 왜곡을 찾아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부산하게 움직이거나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건드리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행동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노인 원형과 소년 원형, 남성 원형과 여성 원형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문제와 해결책은 자명한 듯하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소년 원형과 노인 원형, 남성 원형과 여성 원형 사이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졌으며, 그것들이 서로를 감염시켜서 왜곡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옴은 정신치료에서 증상은 없애버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목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증상이란 지금 그의 정신 구조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경보(警報)이고, 치유의 실마리를 알려주는 정상적인 생리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증상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없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내는 의미를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 그때 그 증상은 그에게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다. 인격의 전일성을 이루게 해서 그 질병에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사회로부터 지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의 정신적 불균형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어린이 같은 미숙함과 노인 같은 완고함에서 벗어나고, 거친 남성의 권력의지와 냉혹한 여성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어린이의 창조성과 노인의 원숙함, 성인 남성의 정신성과 따뜻한 여성의 공감 능력을 배양한다면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신표. “대학, 대학인, 대학문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3년도 대학교수개발 워크숍 자료집,
기독교신문취재팀(편). 『한국교회의 허와 실』. 서울: 콤파출판사, 1992.
김경재. 『종교다원주의시대의 기독교영성』 서울: 다산글방, 1994.
김성민. 『생명의 의미와 새로운 그리스도』. 서울: 다산글방, 2003.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 서울 : 한길사, 1994.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198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신경정신의학』. 서울: 중앙문화사, 2005.
오강남. 『예수는 없다』. 서울: 현암사, 2001.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 서울: 문덕사, 1995.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이오갑. 『한국기독교 개혁의 테마 20』. 서울: 한들출판사, 2002.
정진홍. 『한국종교문화의 전개』. 서울: 집문당, 1988.
최봉영.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1998.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1993.
Althusser, Louis. *Pour Marx* Paris: Maspero, 1966.
G. Aulen/ 김관석 역. 『조지신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Bergson, Henri. *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 Paris : PUF, 1984.
Biesanz, M. H. and Biesanz, J. *Introduction to Soci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Corneau, Guy. *Absent Fathers, Lost Sons*. Boston: Shambhala, 1991.
Eliade, M. 『종교형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2.
Ellul, J/ 양명수 역. 『하나님이나 돈이나』. 서울: 대장간, 1991.
_____/ 자끄 엘뤼변역위원회 역. 『뒤틀려진 기독교』. 서울: 대장간, 1990.
Hillman, J. *Senex and Puer*. Putnam, Connecticut: Spring Publications, Inc., 2005.
_____. *Puer Papers*. Dallas: Spring Publications, Inc., 1991.
Hofstede, G/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Jenks, Chris/ 김윤용 역.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술사, 1996.

- C. G. Jung, *Metamorphose de l'ame et ses symboles*. Geneve: Librairie de l'Universite George, 1953.
- _____.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IX, Part I, 1959.
- _____.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Aspects of the Masculine*. New York: MJF Book, 1989.
- _____. *Aspects of the Femini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Aion*. Paris: Albin Michel, 1983.
- Neumann, E. *The Great Mother*.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Papadopoulos, R. K.(ed), *C. G. Jung: Critical Assessments* London: Routledge, 1992.
- Tillich, P. *Systematic 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 Ulanov, A. B. *The Feminine in Jungian Psychology and in Christian Theology*.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1.
- von Franz, M.-L. *Puer aeternus*. Zurich: Sisa Sternback-Scott, 1970.
- Steinberg, Warren. *Masculinity*. Boston: Shambhala, 1993.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hristian and the Recovering of Wholeness

Seongminne Kim

The major factors which affect to build up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hristian are not only geographical condition of Korea but the history of religious situation of Korea that passed from the belief on sky-god, Shamanism, Buddhism to Confucianism. Those factors were mixed together and formed Korean Christian. We think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hristian are some what negative such as the disproportion between

fundamentalism and the searching for upright faith, the disproportion between mysticism and the searching for immediate experience, the disproportion between secularism and active faith, the disproportion between behaviorism and wholehearted faith. It seems that these disproportions have brought forth the ego-centered behavior and the split between the faith and practice for Korean Christian. But every disproportion usually cause the psychopathology for human being. So many Korean out of church reproach most Korean Christian for their hypocrisy.

We think that these disproportions have been derived from the break down of the tension between the archtypes which constitute the psychic structure, especially puer archetype/senex archetype and masculine archetype/feminine archetype. While the puer archetype exerts as the source of the creativity, possibility, renewal, the senex archetype exerts as the source of the law and order, teleological fulfillment, harvest, and meaning. Analytical psychologist C.G.Jung insisted on the importance of the tension between the puer/senex archetype and masculine archetype/feminine archetype, as the breakdown of it causes many psychological pathologies. We think that most of the problems of Korean church come from that polar division. So it is very important to integrate those archetypes and recover the wholeness of personality.

Key Words

personality, Korean Christian, puer/senex, masculinity/femininity, wholeness

논문접수일 : 2010년 8월 13일

논문수정일 : 2010년 9월 3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0년 9월 13일